

인터뷰 - 노스님 위한 석상마을 착공한 법만 스님

# “교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불사”

“이제 시작입니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사부대중의 의지와 원력으로 마을 규모를 점차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사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법만 스님이 노스님들의 수행마을인 석상마을을 착공식 하루 전날인 6월 27일 공개했다. 선운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석상마을은 입구에는 차나무 앞이 반짝이고 있었다.

“불가의 전통 그대로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곳도 결국은 선운사의 일부로 경내로 보면 될 겁니다. 전기, 통신선은 땅 밑으로 깔아 보이지 않게 해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고, 기존 황톳길, 돌담길, 작은 냇길까지도 살려낼 겁니다. 어른 스님들의 최고 수행공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석상마을 곳곳의 빈 집이 눈에 띄었다. 올해 석상마을 원주민은 마을일을 위한 1명 외에 모두 이주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터에서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노스님들의 수행공간이 된다는 말에 주민들은 적극 협조했다.

“최근에는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108개의 등을 달아달라며 108만 원을 보시하는 신도도 있었습니다. 신도 한 두 명의 원력이 아닌 사부대중의 염원으로 부처님 기본 사상과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7년 5월 선운사 주지로 부임한 법만 스님이 석상마을을 구상한 것은 20년 전이다. 선운사에서 출



가해 전국 여러 선방에서 25차례나 안거한 스님은 “선방에서 노스님들을 볼 때마다 지금의 석상마을 같은 곳을 꼭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법만 스님은 사찰이 가진 수많은 자원을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고심해왔다. 노후수행마을

도 스님이 오랜 시간 동안 목표했던 숙원사업으로 선운사 주지를 하면서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었다. 법만 스님은 종단의 노후보장, 복지에 문제를 느껴왔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승려노후를 모두 책임지기는 무리가 있다”며 “교구본

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뒤야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단 차원에서 승려노후를 모두 책임지기는 무리가 있다”며 “교구본

이상연 기자

특별기고



진오 스님 대운사 주지

## 이주민 포교 갈 길 멀다

이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인격성숙도를 비교할 수 없듯이 이주민의 문명이나 야만성을 따지는 것은 한국에 대한 혐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업보를 초래한다.

이주민들은 일요일과 휴일에 공장에서 벗어나 사찰을 찾아가고 싶어하며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곳이 없다. 한국불교의 포교역량이 부족한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스님들이 산중생활을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포교현장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아들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주민의 어려움도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드물다. 생각해보면 사찰 신도조직과 지역 이주민성을 1:1 진정어마 결연으로 인연 맺는 방법이 있다.

전통사찰요리교실과 사찰음식초대전은 큰 관심을 끈다. 초파일 노

래지랑대회를 열고 생필품 제공과 어울림 시간으로 흥겹고 즐거운 연 등축제도 가능하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여성이 전통복장을 입고 사찰합창단 활동을 하거나 백중맞이 합동제사와 국가별 음식시식회를 열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명찰순례시 이주민성과 동반 아동의 가족을 동참시키는 신행프로그램도 좋다. 아시아 출신 여성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불교신앙 속에서 자란 까닭에 법당을 찾아 향 피우고 삼배 올리며 소원을 비는 모습은 일반적인 종교생활과 같다.

다문화 자녀는 전국적으로 8만여 명에 이른다. 자녀를 위한 교육열은 다문화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다문화자녀 장학금제도는 거사실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면 배우자 남편을 인도할 수 있고, 정기적인 단편모임 활성화에 상상작용이 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성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대안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지원했지만, 언어소통 부재, 부부갈등, 시부모와 갈등, 평균 12세 차이의 남편과 세대차이에 따른 부적응 상황을 이주여성 탓으로 돌렸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다. 문화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하라는 사회통합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남편이 밤늦도록 술 마시고, 말이 안 통한다고 때리고, 너희네 나라로 되돌아가라는 농담에 이주여성은 심리적 큰 상처를 받는다. 그들을 위한 비구니스님들의 인권보호활동은 매우 높은 효과를 얻는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구성원들로부터 냉대 받을 것이다. 향후 교구본사별 이주민복지원센터가 운영돼 사회적 약자와 이주여성들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 불교가 나서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를 실현

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며, 각종 재해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자발적인 자조집단 형성을 목적으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포교활성화를 위해 경북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다.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를 만나고, 아플 때 쉬고, 폭행과 임금체불의 부당한 사례에 적극 개입하여 도움을 준다. 주말마다 태권도교실,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일요일과 연휴 기간에는 각종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포교의 제1 전략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한 만큼 대우 못 받는 사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는 쇠가머니 부처님의 평등, 평화, 자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과연 자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들에게 머리가 아닌 심정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국불교는 포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총무원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현장에서 애쓰는 독립군(?) 스님과 포교사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바란다.

이상연 기자

### 100자 뉴스

**조계종 화쟁위 4대강 사업 찬·반 의견 청취**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4대강 사업에 관련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청와대 박재만 수석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 환경부 김지태 물환경정책국장, 시민단체 측에서는 김정옥 서울대 교수, 황형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참석했다. 화쟁위 대변인 법만 스님은 회의 후 “제3차 회의에서는 양측의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7월 14일 예정된 제4차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화쟁위원의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포교원 경찰전법단 출범**  
경찰 포교 활성화 위해 구성된 조계종 경찰전법단이 6월 28일 서울 경자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거행했다. 경찰전법단은 스님 42명으로 구성된 경찰 불자들의 법회 및 신생활동지원에 나서게 된다. 경찰전법단 창립은 포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 조직 구성의 일환으로 5월 12일 창립된 병영전법단에 이은 두 번째 전법단이다. **박선주 기자**

**東大 경주 예술문화진흥연구소 7월 학술회의**  
동국대 경주캠퍼스 예술문화진흥연구소(소장 박상진)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문화예술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역사를 통한 불교문화예술의 진흥 방향 모색(김승국) △전통불교문화의 현대적 복원-불교무형문화의 자산과 콘텐츠 가치에 대한 주목(구미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연구실장) △법회 의식곡 문제점 개선을 통한 불교문화의 정체성 회복(최경민 동국대 교수) △불교 전통공연예술의 현황 및 발전 방향(손태도 문화재전문위원)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054)770-2201 **이나은 기자**

**불교인재원 7월 23~25일 불교 모금 강좌**  
불교인재원은 7월 23~2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교 모금(권선 혹은 화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모금 문화 방향 설정을 위한 모금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김재춘 아름다운가게 정책국장, 이희관 사회공헌정보센터 자문위원, 김동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사업단 팀장이 △모금의 개념과 원리, 불교계 모금활동의 현실 △모금기획과 전략의 설계, 종교단체의 모금과 지역모금 △모금제안서의 작성(모금 메시지 개발 워크숍) △블루투스-온라인과 IT 모금 △108가지 모금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02)735-2428 **이상연 기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청소년 교리 경시대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이하 경시대회)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 경시대회는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9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된다. 군장병을 위한 경시대회도 시범적으로 육군 제9·25사단에서 각각 부대별 일정에 맞춰 열린다. 참가신청은 7월 12일~8월 31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우편접수도 가능) (02)515-9351 **조동섭 기자**

#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기탄잘리’와 무산 조오현 선사의 시집 ‘만약가타집’ 비교연구 국제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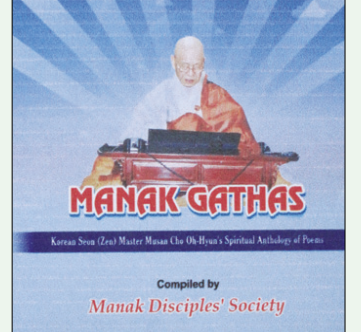
## 시를 통한 한국과 인도의 마음 나누기 (Sharing Mind between INDIA and Korea through Poetry)



**동방의 등불** 타고르 작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종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발을 뻗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주요한 옮김, 1929.4.2).

- ◆ 기조연설 : 아쇼크 메이트레이 박사 (Dr. Ashok Maitrey, 인도 국민시인)
- ◆ 발 제 자 : 1. Dr. Ashok Maitrey : 타고르의 ‘기탄잘리’와 조오현의 ‘만약가타집’ 비교 분석 (하 푸르 타고르 시인협회장)
- 2. Dr. Er. Shreyskar Gaur : 타고르의 시세계 (인도 델리대학교 영문학교수)
- 3. Dr. Padam Singh Sidhu : 만약 가타집 분석 (인도문학연구소장)
- 4. Prof. Dr. N.Q. Pankaj : 인도고대불교문학 (베나레스 힌두대학교)
- 5. Dr. Birendra Nath Parsad : 인도현대불교문학 (력나우대학교)
- 6. Prof. Dr. Ajay Vijay Kaur : 인도현대문학 (하푸르 미트 대학교)
- 7. 라메쉬 마단 박사 ‘타고르 여성관’ (인도정부 인적자원부 사회과학연구원 부소장)
- 8. 무산 조오현 시 세계
- 9. 인도의 전통과 음악
- ◆ 패널리스트 : 60명 (인도의 시인, 교수 등)
- ◆ 일 시 :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 ◆ 장 소 : 인도 웃타라프라데쉬(UP) 하푸르, 디프 웃사브 대연회장
- ◆ 세미나 발제자 10명 · 패널리스트 60명 · 참가인원 3천명

주관 : 인도정부 인적 자원 부 사회과학재단 온커 사회과학연구소  
후원 : 인도 하푸르 타고르 시인협회  
한국연락처 : 02)3672-5042 dhammalee@hanmail.net



**아득한 성자** 조오현 작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는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